

지각자의 성격특성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황미선* · 이명희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본 연구는 의복의 시각적 이미지 평가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자의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과 의복비, 의복스타일에 따른 이미지평가의 차이를 조사하며, 성격특성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질문지에 의한 준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의복스타일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이미지 평가 문항, 의복스타일 선호도,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 인구통계적 변인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극물은 여성복 스타일로서 흑백사진의 컴퓨터출력물을 사용하였다. 그 스타일은 바지정장, 치마정장, 캐주얼, 힙합, 8부바지, 에스닉, 페미닌 스타일의 총 7개를 포함하였다. 이미지 평가에 사용된 의미분척도도는 7점 양극형용사쌍으로 구성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의복스타일 선호도는 1문항을 사용하여 7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은 7문항을 사용하여 5단계 Likert 척도법으로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신뢰도는 .69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연령과 의복지출비를 조사하였다. 피험자는 서울 지역의 18-37세 여성 120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요인분석, t-검증, 변량분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복이미지 차원은 품위, 활동성·개성, 유행성의 3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의복스타일에 따라 각 요인의 이미지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바지정장은 활동성·개성과 유행성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치마정장은 품위가 높게 지각되었다. 힙합 스타일은 활동성·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8부바지는 품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에스닉 스타일은 유행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페미닌 스타일은

품위와 유행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성격에 따라 활동성·개성 요인의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내향성이 높은 사람보다 같은 자극물에 대하여 더 개성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셋째,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는 유행성 요인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내향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비가 적은 사람이 의복비가 많은 사람보다 유행성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의복비에 따른 유행성 평가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넷째, 성격에 따라 모든 스타일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어,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각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으며, 특히 8부바지를 선호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외향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지니므로 다양한 스타일의 의복을 모두 수용하며, 특히 활동적인 8부바지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다섯째, 의복비가 높은 사람은 의복비가 낮은 사람보다 바지정장, 치마정장, 8부바지를 더 선호하였으며, 캐주얼, 힙합 스타일은 의복비가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편이었다.

여섯째, 성격과 의복비에 따른 의복스타일 선호도는 치마정장과 캐주얼 스타일에서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내향적이면서 의복비가 높은 사람 내향적이면서 의복비가 낮은 사람보다 치마정장을 더욱 선호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내향적이면서 의복비가 낮은 사람이 의복비가 높은 사람보다 선호도가 높았으며, 외향적인 사람은 의복비가 높은 사람이 의복비가 낮은 사람보다 캐주얼 스타일을 더 선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각자의 성격 및 의복지출비에 따라 의복의 이미지 평가와 선호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지각자 변인이 의복의 시각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 특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